

도요사카 신사

이와미 은광은 발견된 1527년부터 도쿠가와 씨족이 일본 전역을 정복하여 에도(현재의 도쿄)에 막부를 설립해 은광을 직할령으로 편입시킨 17세기 초까지 이 지역을 통치한 지방 무사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도쿠가와 씨족이 이어받기 전까지는 모리 씨족이 이와미 은광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모리 씨족의 당주였던 모리 모토나리(1497~1571)는 1561년 은광을 수중에 넣었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 긴잔(은광)강 인근 비탈지에 검소한 분위기의 사찰을 짓고 본당 내부에 자신의 모습을 조각한 목조상을 안치했습니다.

모토나리의 수중에 들어간 이 성스러운 지역은 수세기 동안 도쿠가와 막부가 지배했던 태평성세에는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1866년 무가 시대의 종언을 고한 제2차 조슈전쟁이 발발하면서 일본 남부의 사쓰마번(현재의 가고시마현)과 모리 씨족의 후손이 추방되었던 조슈번(현재의 야마구치현)의 군 부대가 진군 도중 우연히 이 사찰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이때 사찰 안에서 전설 속의 군주상을 발견한 군사들이 매우 기뻐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제2차 조슈전쟁에서 승리한 조슈번의 무사들은 같은 장소에 새로운 사당을 건설했습니다. 이전에는 불교 사찰이었던 이곳은 근대적 국가주의의 수단으로 신토를 육성하려는 신정부의 정책에 따라 신사로 지어졌습니다. 도요사카 신사는 1943년 발생한 산사태에 휩쓸려 그 일부가 파괴되었지만, 화려한 문과 독특한 형태의 본전은 지금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모리 모토나리의 목조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